18회 결핵예방주간

유공자등을 표창

제18회 결핵예방주간기념식이 지난 12월 6일 신문회관에서 李坰鎬보사부장관, 金晟鎭결핵협회장, 韓格富대한의학협회장 등 200여명의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념식에서는 결핵 퇴치사업에 공이 큰 尹惠淑(서울종로보건소)씨 등 8명은 보사부장관표창, 허버트 A·코팅톤(광주기독병원 결핵과장)씨 등 3명은 감사장을 받았다.

結核菌培 養실험용으로 野生다람쥐 적합

=延大醫大연구진서 밝혀=

연세대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崔大卿(44) 柳駿(55)박사는 결핵균배양실험용으로 종래에 써오던 쥐보다는 한국산 야생 다람쥐가 더 적합하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 결핵연구에 밝은 전망을 보였다.

이 연구는 지난 63년초 최박사가 결핵에 관한 학위논문을 위해 지금까지 써왔던 실험용 동물인 쥐 200마리에 결핵균을 접종, 한마리도 감염되지 않아 실패한 후 9년만에 결실을 보게된 것이다.

연구진은 70년 1월과 71년 10월 두차례의 실험에서 쥐 60마리와 야생쥐 60마리를 분리 접종시켰다.

쥐는 30일이 지나도 감염이 안되다가 40일쯤 되니까 약간의 반응이 나타났으나 60일이 경과된 뒤 오히려 균은 완전 소멸되어 내성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60마리의 야생 다람쥐는 8일째 부터 30일 사이에 전부 감염되어 죽었다. 연구진은 균접종 5일 후 다람쥐를 해부한 결과 간장과 비장에 상당수의 균이 감염되어 있었고 10일 만에는 체내 모든 기관에 반응이 나타났음을 밝히고 결핵 조기진단 처방을 위한 실험용으로 최적임을 증명했다.

「세계최초 臨床凱歌」란 터무니없는 紹介없도록

權彝赫(서울의대 학장)박사가 一針

서울 대학교 의과 대학학장 權彝赫박사는 서울신문기자와의 회견에서 지난 해의 학회 활동상황과 일부교수들의 『세계최초 임상개가』라는 터무니 없는 연구발표를 「매스컴」에서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아래와 같이 말했다.

지난해 의학회 활동상황

▲ 의학협회 산하 35개 분과학회에서 해마다 1,500개 안팎의 연구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문제는 양보다 질적인데 있다고 본다.

학술대회는 1년동안 연구한 성과를 학회를 통해 발표, 회원상호간의 학술교류와 친목에 목적이 있다. 학회의 알찬발전과 좋은 논문발표는 정부나 민간단체에서 대학교수들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를 늘린다면 더욱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

「세계 최초의 임상 개가」운운의 과장 소개

▲ 요즘 신문사회면에 가끔 소개되는 「세계 최초의 임상 개가」라는 기사에 대한 학자로서의 소감을 말하라 한다면 한마디로 우수운 이야기다. 외국에서 10여년 전에 이미 소개된 연구논문을 세계 최초라고 떠들어대니 우선 이런 연구결과를 「매스컴」에 제공한 대학교수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기사가 통신을 통해 외국에 알려지면 우리나라 과학계를 망신 시키는 결과를 가져 온다.

따라서 이러한 보도는 앞으로 신중하게 「매스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혹시 대학교수가 연구비를 얻으려 하거나 이름을 날리기 위한 방법으로 말할 때 신문기자는 절대로 여기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오보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부탁한다. 또 이런 기사는 상식적으로 「한국최초」라는 기사는 될 수 있다.

4世代「컴퓨터」인 「유니백 9700」 첫선

14가지「프로그램」同時에 다양한 處理가능 국내최고속의 「컴퓨터」보다 10배나 빨라

「스페펄렌드·코리어」사와 한국「유니백」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처음보는 4세대「컴퓨터」인 「유니백」 9700「시스팀」에 대한 발표회를 가졌다. 그동안 내부에 진공관을 쓰는 「컴퓨터」를 1세대「컴퓨터」「트랜지스터」를 쓰는 것을 2세대「컴퓨터」 IC(集積回路)를 쓰는 것을 3세대「컴퓨터」라고 불러 왔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신 기종은 모두 3세대「컴퓨터」인데 이번에 발표된 것은 LSI(高集積回路)를 쓴 것이기 때문에 4세대 「컴퓨터」라고 부른다. LSI가 아직 개발의 여지가 많고 내부에 LSI만을 쓴 것이 아니므로 4세대라고 부르기는 어렵고 3.5세대라고 하는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아뭏든 「유니백」 9700「시스팀」은 세계 최대의 「컴퓨터」회사인 IBM사가 개발한 370형과 비교 되면서도 성능은 더 우수한 것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유니백」 9700「시스팀」은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컴퓨터」보다도 연산 속도가 빨라서 4「바이트」(「바이트」는 0.1과 같은 정보의 최소단위)를 10억분의 600초에 처리한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속도를 자랑하는 「컴퓨터」보다 약 배가 빠른 것이다. 그리고 「유니백」 9700「시스팀」은 동시에 1.4가지「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것이 특색으로 돼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딴 기종은 제일 좋다는 것이 9종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니까 그 보다 50% 많이 처리할 수가 있는 셈. 「유니백」 9700「시스팀」은 운영「시스팀」이 보다 다양해진 것도 장점으로 돼있다.

즉 내부에 무슨 일을 해결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쉽게 찾도록 하는 운영「프로그램」이 들어 있기 때문에 광범하고도 다양한 처리가 가능해 진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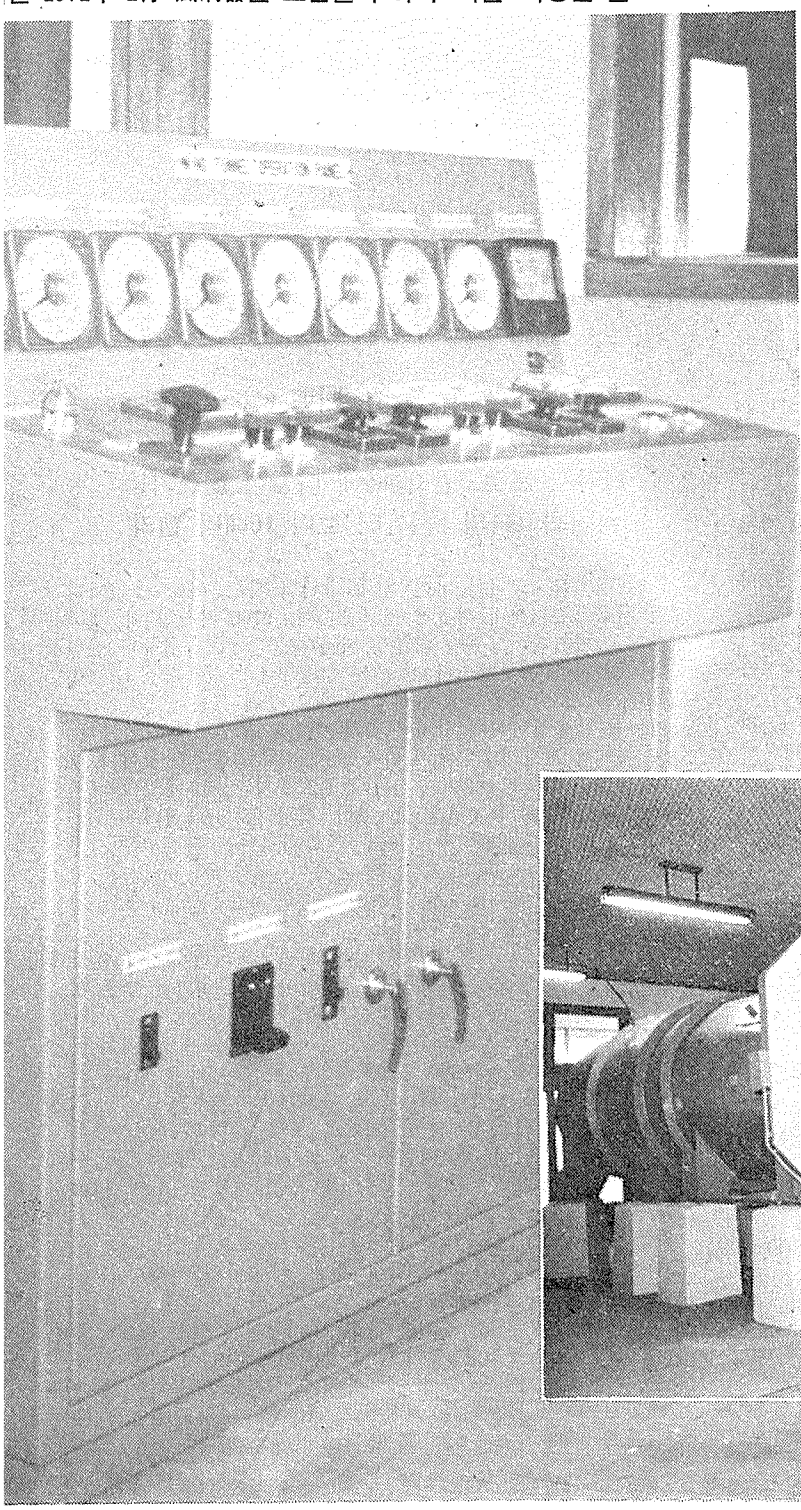
그러면서도 「유니백」 9700의 값은 우리나라에 있는 최고성능의 딴 기종의 반 정도인 것이 또한 특색이라고. 이「컴퓨터」는 지난 5년간 수천만불을 들여 미국의 「스페릴랜드·유니백」본사가 개발한 9000「시스팀」의 최신형으로서 70년대의 「컴퓨터」라는 뜻에서 9700「시스팀」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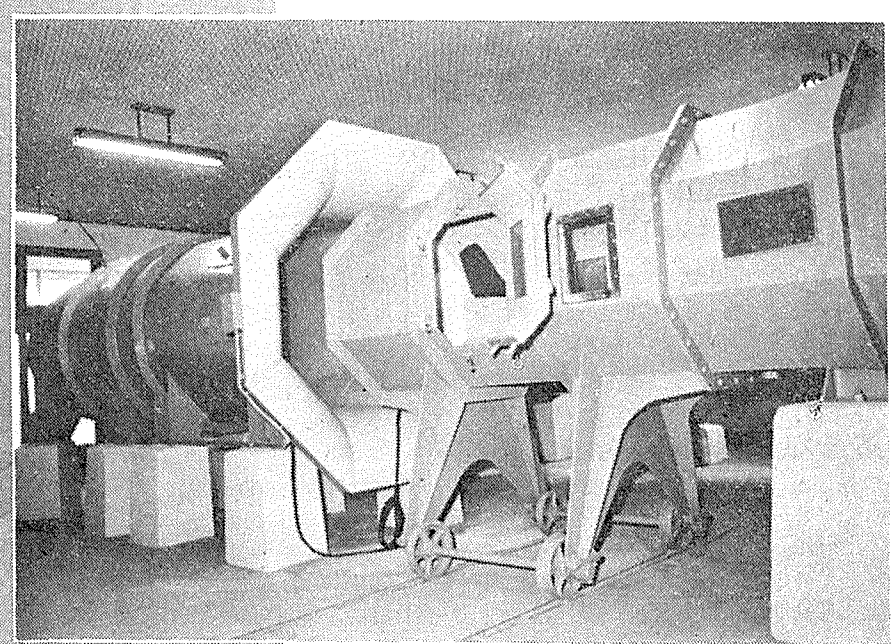
風洞장치 가동 · 중앙관상대서

氣象測器 檢定 및 연구개발에 寄與

학기술처 산하 중앙관상대는 風向, 風速計의 검정과 바 의한 災害試驗等에 쓰여질 風洞裝置가동식을 지난 29일 燮과 기처장관을 비롯한 關係人士가 參席한 가운데 거행.

난 1971年 2月 風洞器를 도입설치 하여 이날 가동을 본 풍동장치는 앞으로 氣象測器(風向風速計) 검정 및 연구개발과 大氣의 난류 확산에 관한 실험적 연구기상 재해의 연구등에 상용할 것인데 소요 예산은 외자 75.000달러 내자3.300.000원이 소요되었다.





◇사진은 풍동가동기(좌)와 풍동장치(우)

食用 개구리 室內飼育에 성공

전국 遊休 內水面에도 分布

◇작년 7월에 日本서 수입해온 식용개구리의 2世가 탄생했다.

梨大동물학 교수 金憲奎博士가 사육하는 食用개구리 2世 탄생

1971년 5월 4일 日本으로 부터 종자 개구리로 10마리를 수입하여 야외에서 産卵시키는데 성공한 金憲奎박사는 동년 9월 16일, 올챙이들이 多眼에 들어가기 전에 20마리를 採集하여 실내에서 사육해 왔는데 지난 1월 22일 완전히 꼬리를 흡수하고 개구리로 變態하므로써 실내 사육실험에 성공을 보게 됐다.

그 동안의 경과

1971년 9월 16일 채집 體長 80mm (꼬리 포함)

1971년 12월 4일 體長 110mm 뒷다리 나옴

1972년 1월 8일 體長 120mm 앞다리 나옴

1972년 1월 22일 體長 45mm완전변태

容 器

열대어를 기르든 장방형 水槽(30cm×90cm×45cm)에 쑥풀을 심은 유리 어항을 이용하였다. 어항 하나에 올챙이 10마리씩 넣고 사육하였다.

水 溫

어항용 히—터(니크롬線) 水溫調器 장치로 22°C를 유지하였다.

물 供給

수도물을 격일로 갈아 넣어서 먼자란 큰 올챙이들이 방출하든 성장제물질을 제거했다.

人工 飼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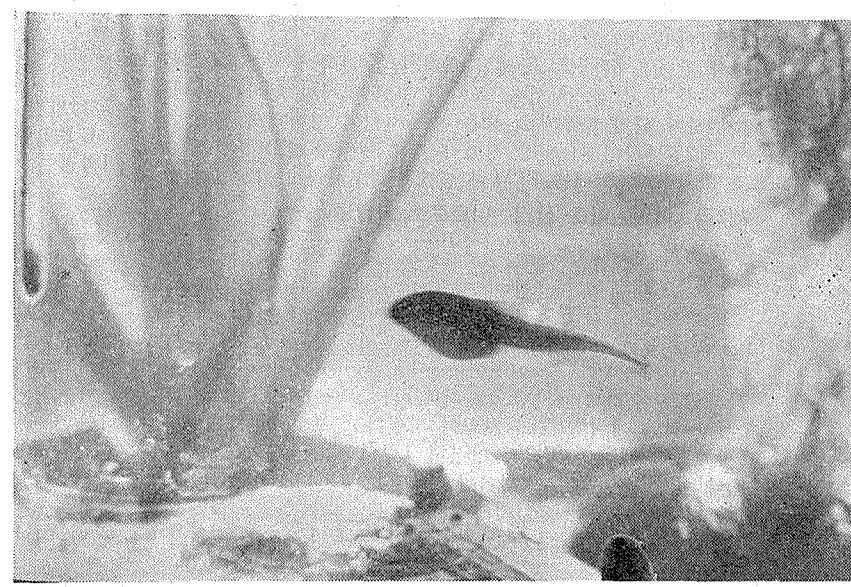
먹이는 동물성(번데기 가루) 40% 물성(감자·콩 가루·쌀겨등) 60% 혼합하여 반죽을 만들고 밥톨크기 떡을 만들어서 한 어항에 매일 2개 넣어 주었다.

먹이 동물

남은 문제는 완전변태한 한개구는 움지기는 작은 동물만을 잡아 으므로 먹이 동물의 공급을 잘 하것이라 한다.

지난 1월 19일 素砂방면에 가서 가운데 있는 웅덩이에서 송사리·들붕어·미꾸라지·소곰쟁이·물·미·송장 헤엄치개·잠자리仔虫등은 먹이동물을 채집해다가 현재 「이 붙이기」實驗中에 있다.

실내 사육에 성공한 金博士는 앞로의 포부를 우선 종자 개구리를 이 길러서 전국에 있는 遊休 內水에 분포 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어항에서 자라고 있는 올챙이.